



■ 사위를 맞는 기쁨

캄보디아에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귀한 일에 함께 하시는 노원성진교회 최지훈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며 저희 소식 전해드립니다.

【딸 해운이 결혼식과 유효연 선교사 수술을 마치고】

첫째 딸 해운이가 교회에서 만난 김찬술 군과 지난 5월초 사랑이꽃피는교회(구빈건 담임목사)에서 하객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효연 선교사는 해운이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안양샘병원에서 부인과 수술을 했는데, 개복을 해서 보니 예상외로 장과 장이, 장과 복벽이 심각하게 유착된 것을 발견하고 외과 의사가 긴급하게 투입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수술이 잘 끝나고 지금은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제자반 아이들】

제자반 아이들과 함께 오랜만에 제자훈련을 하니 비로소 내자리에 온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배시간에는 아이들 한사람 한사람 눈을 맞추면서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도 들려주면서 설교를 하니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직 수술 후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는데도 유선교사는 기꺼이 제자반 아이들과 숯불구이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온 덕분에 그 사랑을 우리 제자반 아이들에게 흘러 보냈습니다. 지금은 철부지들이지만 나중에 이들이 선교사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배운대로 실천할 날이 오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톡톡이 차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GEM선교회(세계교육선교회 대표회장: 하상선 목사)에서 저희에게 톡톡이 두 대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톡톡이는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교통수단입니다. 주일예배 때 땡벌 아래 걸어서 교회에 오는 교인들에게도, 가끔 제자반 아이들이 나들이를 갈 때도, 곧 있게 될 교육관 건축을 할 때 각종 자재를 운반할 때도, 교회에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운반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설레는 것은 톡톡이를 타고 주일 오후에 썸보면 17개 마을을 타켓으로 제자반 아이들과 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방법에 취약한 선교지라서 톡톡이를 구입하기 전에 먼저 톡톡이 차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몇년 전 50을 넘은 나이에 백선교사가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어학부에 편입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 다문화가정이 많은 한국사회에서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였습니다. 사역과 병행하려니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몇번의 휴학을 하며 결국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편입할 때는 몰랐는데 8개 과목을 더 수강하면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과목까지 수강하느라 마치 마라톤을 하듯이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선교사의 페이스북 내용을 공유하며 이번 저희 소식을 마무리 합니다】

우리 부부가 애정을 쏟아 키운 썸냥이 며칠 전에 교회에서 빌려준 자전거와 함께 사라졌다. 우리 부부가 한국에 가있는 동안 믿었던 썸냥이 야단 맛을 일들이 몇가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등 두드려 격려해주고 앞으로 성실하게 하겠다는 다짐까지 받았는데... 전날까지 내게



■ 숯불구이파티



■ 톡톡이 차고 공사현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외가가 있는 먼 지방으로 떠나버렸다. 크고작은 일들로 인한, 사람에 대한 여러번의 실망은(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한...) 내가 이 나라에서 이 나라 사람들에게 뽕 뜯기고 사는 것 같은 모멸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애정과 정성을 쏟는 만큼 사람도 잘 자라주길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소망인가... 사람 안 변한다는, 사람 고쳐쓰는 것 아니라는 옛말이 싫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고쳐쓰신 사람 이야기가 무수히 나오니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저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다. 그래야 이 나라에서 정신줄 온전히 유지하고 살 수 있으니...

■ 기도제목

1. GEM선교회(세계교육선교회-대표회장: 하상선 목사)에서 지원해 주는 특특이를 통해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2. 제자반 아이들이 한국 교회와 선교사의 사랑을 받고 자라 캄보디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3. 한국어교원자격증과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이 앞으로 유용하게 잘 쓰이도록.
4. 유효연 선교사가 수술 후 회복이 잘되고 더욱 건강해 지도록.
5. 김찬솔과 백혜윤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 가도록.
6. 7월달 호산나교회 단기선교팀이 건강하게 은혜가운데 사역 잘 감당하고 무사히 귀국하도록.

2025년 6월 27일

하나은행 022-04-00057-011 합신세계선교회 백정운

